

다산포럼

공부하면 할수록 역량을 망가뜨리는 교육 시스템



김재민 철학자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

얼마 전 한 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과 인간 역량'을 주제로 '명사 특강'을 했는데, 학교 선생님께서도 충격을 받은 학생이 "선생님, '명사'가 뭐예요?"라고 질문했다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의 '어휘력'과 '문해력'을...

현재 대한민국은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역량이 망가지는 교육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책을 읽으면 공부하는 언젠가? 책 좀 그만 읽어." 어른들은 공부하라며 책을 빼앗는다. 독서는 입시에 할애할 시간을 빼앗는 '남비'로 여겨질 뿐이다. 모둠 과제는 불화를 조장한다. 나이가 음악, 미술, 체육 시간이 아까워서 자퇴하는 고등학생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저 시간을 아껴서 독서할 리는 없다. 학교는 수면을 위한 장소고 공부하는 학원에서 한다. 문재 푸는 법을 익히고 연습하는...

것이 현재의 공부다.

역량이란 '할 줄 안다'는 뜻이다. 어휘력과 문해력 같은 역량은 언어 활동 과정에서 길러진다. 책을 빼앗고 대화를 막는 사회에서 어찌 그 역량이 길러질 수 있겠는가. 요컨대 어휘력과 문해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답론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외면한 채 결과만을 꾸짖는 나쁜 답론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어른들은 무엇을 했는가?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자. 현재의 입시 중심 교육을 통해 과연 아이들의 역량이 길러진다고 생각하는가? 수능 점수가 좋으면 해당 교과목과 관련된 역량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현행 교육 제도를 고수하는가? 공부 할수록 아이들의 역량이 퇴보하는데, 왜 걱정하고 아이들을 망치는가? 아이들의 역량을 성장시키려는 소중한 시도들은 왜 자주 절망하는가? 지금과 같은 공부를 제발 멈추면 안 될까?

'공정한 선발'이 중요하다는 핑계를 댈다. 몸과 생각의 근력을 훈련할 수 있는 성장기가 거의 끝날 무렵인 20세 언저리까지 아이들의 역량을 찾아와 놓고서, 역량이 다 소진된 이들에게 대학이 무엇을 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날개 꺾인 새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정신병과 자살로 내몰리는 학생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는가? 학생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누구 좋으라고 현행 교육 시스템을 지속하는 건가?

지금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은 학생이 가진 모든 역량을 망가뜨리는 학대 시스템이다. 누구나 알고 있다. 예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조금 있는데, 예전엔 빠져나갈 틈이 많았다. 지금은 10대까지의, 아니 20대 초반까지도, 모든 삶이 촘촘하게 포획되어 있다. 이 차이를 직시해야 한다. 지금 다른 삶은 별로 가능하지 않다.

책을 읽고 그림을 보고 음악을 듣고 운동하고 노는 걸 막는 사회가 오게 못할 것은 뻔하다. 기운을 꺾고 생기를 빨아먹는 것이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를 우려한다고? 학대 받으며 자라는 청년들이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지옥의 삶을 더는 물려주지 않으려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다. 이들은 윤회의 고리를 끊고 해탈하고 있다.

날개 꺾인 새들이 더 파괴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자기 파괴의 형태로 저항했지만, 언제 돌변해서 바깥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들지 모른다. 철학자 니체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무화시키려는 니힐리즘이 번성한다고 진단했다. 철학적 개념인 그깟 니힐리즘이 뭐 그리 두렵냐고? 니힐리즘이 파시즘과 나치즘으로 불타 올랐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 오늘 날 전 세계적으로 다시 찾아온 극우의 물결도 니힐리즘과 결을 같이 한다. 니힐리즘이 언제까지 남의 일로 머물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청춘 특특

도시를 바꾸는 우리의 작은 걸음



김해연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2년

대학교에 들어와서 세 번째 방학을 맞았다. 매년 "이번 방학은 알차게 보내자! 자격증도 취득하고, 부족한 전공지식을 쌓아야지"라고 다짐했지만 계획은 계획일 뿐, 완벽하게 이룬 적이 없었다. 이번엔 달라져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방학을 맞이했다.

도시계획학과에서 1년 반 동안 도시계획을 전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환경 문제, 주거 불안정, 교통 체증 등 다양한 문제가 우리 도시들을 둘러싸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전문가들의 몫이 아니라 모든 시민,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 참여형 도시계획이 강조되는 요즘, 도시계획은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다. 대학생들도

지역 개발 계획이나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학생들로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꼭 그렇지만도 않다. 우리 주변에서부터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대학생들도 참여할 공간이 있다. 캠퍼스 주변 지역의 발전 방향성을 고민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참여는 단순히 의견을 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이다. 자동차 중심의 도시 구조에서 벗어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중심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앞장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증가시키는 캠페인을 하거나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를 활용해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이동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의 대기 질 개선과 탄소 배출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대 도시계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스마트 시티 기술이다. IoT, 빅데이터, AI 등의 기술을 도시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 주차 시스템, 에너지

지 효율화 기술, 스마트 쓰레기 관리 시스템 등을 도시 계획에 접목시키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공공시설 설계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 등을 연구하고 제안함으로써,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도시의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미래 도시의 주인공이 될 시민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더 살기 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다. 도시계획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바로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함께 노력해보면 좋겠다.

기고

광주비엔날레와 도시브랜드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광주비엔날레는 세계가 주목하는 미술축제다. 창설 30년의 시간 속에서 누적 관람객 855만명을 기록하며 지역과 세계를 잇는 현대미술 담론의 장으로 우뚝 섰다. 세계 5대 비엔날레의 위상을 당당히 거머쥔 것이다. 그 쉽지 않은 비엔날레의 역사를 광주가 이뤄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만족하고만 있을 일은 아닌 듯 하다. 통계를 말해 주는 것, 그리고 외부의 시선과는 다르게 평가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의 성과를 지렛대 삼아 점핑해야 할 미션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광주시는 5·18 정신을 문화예술로 승화시킨 광주비엔날레를 도시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때를 같이해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상설관 설치와 함께 비엔날레 대표 작품을 구매하거나 기증받아 '상설관 전시'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광주비엔날레를 도시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소식은 너무 반갑다. 그렇다면 광주비엔날레가 향후 어떻게 준비되고 치러져야 도시브랜드로 정착될 수 있을까.

창설 30주년을 맞는 올해 광주비엔날레(9월7-12월1일)의 주제는 '판소리, 모두의 울림'이다. 광주비엔날

레전시관과 양림동 일대 등에서 다양한 전시로 꾸려진다. 언제나 그렇듯 광주비엔날레의 주제와 형식은 늘 탁월했지만 올해는 더욱 독보적이다. 우리 민중예술의 서사를 가진 판소리에서 확인하여 소리를 근거로 한 독창적 미학을 전시로 풀어내겠다는 거다. 대단히 한국적인 특성을 비엔날레에 녹여내겠다는 의도가 읽히기 대심이 커지고 있는 터다. 그러나 문제는 전시주제의 구현만이 아닌 듯 하다. 전시야 잘 이뤄질 것이다. 덧붙여 이런 비엔날레를 주변부에서 어떻게 뒷받침해주느냐에 따라서 쪼그라드느냐 아니면 돋보이느냐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유럽의 도시 오스트리아 린츠에서는 매년 9월 예술 축제가 열린다. 그 중심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이라는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이 있지만 앞서서 가늠했거나 미술을 비롯해 음악, 연극 등 다양한 예술 축제가 열린다. 그 기간 동안 린츠를 방문하게 되면 화려하면서도 볼거리 풍성한 예술축제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것이다. 도시의 방문객들이 예술적 즐거움에 휩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주회는 린츠시와 미디어아트센터인 아르스일렉트로니카다. 그렇지만 이외에도 관련 대학 및 문화예술기관, 기업 등이 모두 총체적으로 힘을 합치고 각자의 역할을 다해서 이 축제를 세계 최고의 축제로 만든다. 덕분에 아르스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미디어아트페스티벌로 정평이 나 있다.

앞서 밝혔듯이 미디어아트페스티벌 전후로 음악과 미술을 비롯해 다양한 퍼포먼스 등의 예술 이벤트가 도

나우강변을 중심으로 전개돼 시민은 물론 관광객의 시선을 확 끌어 모은다. 도시가 예술적 축제 도가니로 바뀌는 것이다. 한 두 기관이 나서서 하는 일이 아니다. 도시가 총체적으로 힘을 결집해 매가 이벤트로 펼쳐내는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역시 '모두 함께' 나서야 한다. 광주비엔날레를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재단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함께 꾸려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다. 여기엔 거시적 관점에서의 문화적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다. 광주라는 도시가 모두 나서 꾸미는 축제와 광주비엔날레재단만이 애터지게 끌고가는 축제는 사뭇 다를 것이 분명하다.

물론 광주비엔날레만이 아니다. 어떤 문화적 사안이 발생하면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으로 도시자원을 누수 없이 이끌어내 더할 나위없이 좋은 형태로 만들어내야 한다.

분절적으로 흩어져 있는 도시 자원을 한데 결집시키고 이를 효율성있게 설계해 내려면 '문화리더십'과 '문화헤드쿼터'가 필요하다. 광주비엔날레와 도시자원은 계란의 노른자와 흰자 관계가 아닐까. 관람객이 비엔날레 전시를 맛있게 먹고 후식으로 또 맛있는 것을 골라 먹을 수 있다면, 그보다 금상첨화가 없다.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각 문화기관들이 특성있는 이벤트를 치르고 이것들이 잘 엮여질 수 있도록 묶어간다면 또 다른 멋진 광주비엔날레가 펼쳐지지 않을까. 문화리더와 헤드쿼터를 한번 작동시켜볼 만하다. 그리한다면 도시의 역량이 한데 그러모아져 광주하면 비엔날레가 떠오를 정도로 비엔날레는 광주의 브랜드가 될 것이다.

社說

주민 동의 없는 한빛원전 수명연장 안 된다

1~2년 후 운영이 종료되는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법적 절차가 영광 지역민과 환경단체의 실력저지로 무산됐다. 영광군민과 환경단체 회원들은 한빛원전의 운영 기간을 10년 연장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한수원이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주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 일방통행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공정회' 개최를 막아선 것이다.

한수원은 지난 12일 오후 영광 스포티움 실내 보조체육관에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공정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사고가 가장 많고 노후화된 원전을 10년이나 연장시키겠다면서 최신 기술기준도 준용되

지 않았다"며 평가서 자체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이에 대해 행사 주최측은 "미국에서는 원전 수명연장 사례가 60건이 넘고, 미국은 수명 연장 기한이 20년인 반면 한국에서는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수명연장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한빛원전 1호기는 2025년 12월에, 2호기는 2026년 9월에 운영 허가기간이 종료된다. 일반적으로 원전 수명연장 운전에는 필요한 최소기간은 3년 6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어, 현 상태로는 운영 중단이후 수명연장 절차를 진행해 재가하는 방안이 점쳐지고 있다. 원전 운영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시되는 만큼 운영 수명 연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야 한다. 한수원은 한빛원전이 다른 지역 원전에 비해 노후화되고 고장도 많았던 점을 감안, 영광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대폭 보장하는 한편 오염지역 원상 복구 대책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펜션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책 마련 급하다

분경 휴가철을 앞두고 가족이 즐겨 찾는 광주·전남 펜션 숙박시설에서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펜션 물놀이 시설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 차원의 통합 물놀이 안전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남지역 내 펜션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3500여 곳에 달한 가운데, 대부분 펜션의 경우 명칭만 '펜션'일 뿐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돼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농어촌민박업의 경우 소화·경보·피난 설비 등이 의무인 관광펜션업과 달리 소화기를 갖추는 등 최소한의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펜션 내 규모가 큰 물놀이 시설 등의 기준을 설치할 경우 사전 신고를 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해야 하지만,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과 소규모 수영장은 따로 신고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펜션 내 소규모 수영장이 더욱 느슨한 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놀이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담양군 한 펜션에서 3살 아이가 수영장에 빠져 위험에 처한 일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1월에는 지역의 한 풀빌라펜션 객실 수영장장에서 가족이 음식을 장만하는 사이 튜브를 타고 있던 5살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문제는 풀가페, 키즈풀, 풀빌라 등 물놀이 시설의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일반음식점과 장소대여업, 기타 유원시설업 등 각기 다른 업종으로 등록되면서 관리주체도, 기준도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같은 수영장인데도 전혀 다른 안전·위생기준을 적용하지만 이용자들이 알기 어렵다는 것인데, 시설 기준에 따라 더욱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숙박시설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물놀이 사고가 빈발하는 만큼, 물놀이 시설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거나 안전장비를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無等鼓

한 때 공중과 방송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던 '흡연' 장면을 요즘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간혹 흡연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방영하더라도 할 때는 해당 장면을 모자이크로 가린다.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남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표현에 신중해야 한다'는 방송심의 규정뿐 아니라 자칫 흡연 장면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서이다. 이른바 어린이나 청소년이 '보고 좋지 않은 것들을 배울

부 기관인 대통령실이 의도적으로 받지 않으려고 인간힘을 쓰는 행태는 누군가 '따라할까 무서운' 장면으로 짚을 만하다.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대통령실 관계자 7명에게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출입을 제한하는가 하면, 담당자가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고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정치적 노림수라고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안내실 접수대에 놓고 간 출석요구서를 들고 나와 다시 길

바닥에 놓고 가는 대통령실 직원의 행동은 유치할 정도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스무 자리가 넘는 비밀번호를 설정한 정치인의 행태는 이미 SNS 등 소셜미디어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 대저 요령이라며 '보고 따라하는' 일이 일상화됐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가 가장 무서운 존재였으나..." 예전 비디오 테이프 영화 불태 영화 시작 전 나오는 문구였는데 호환 마마, 불법 비디오보다 더 무서운 건 불량 정치라는 생각이 실감나는 요즘이다. /김지를 정치부 부장 dok2000@

따라하기

까'하는 우려가 반영돼 조치가. 정부가 지난해 '술량'(술+방송)을 막기 위해 유튜브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대상으로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정부는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등의 항목을 추가했다.

최근 정치 행태는 '보고 배울까' 두려운 장면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흡연·음주 방송보다 더하다. 국회의 공식 문서를 정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 논설실장 蔡熙鍾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洸堯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자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 사진부 220-0693 | FAX 222-0195 |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 체육부 220-0697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